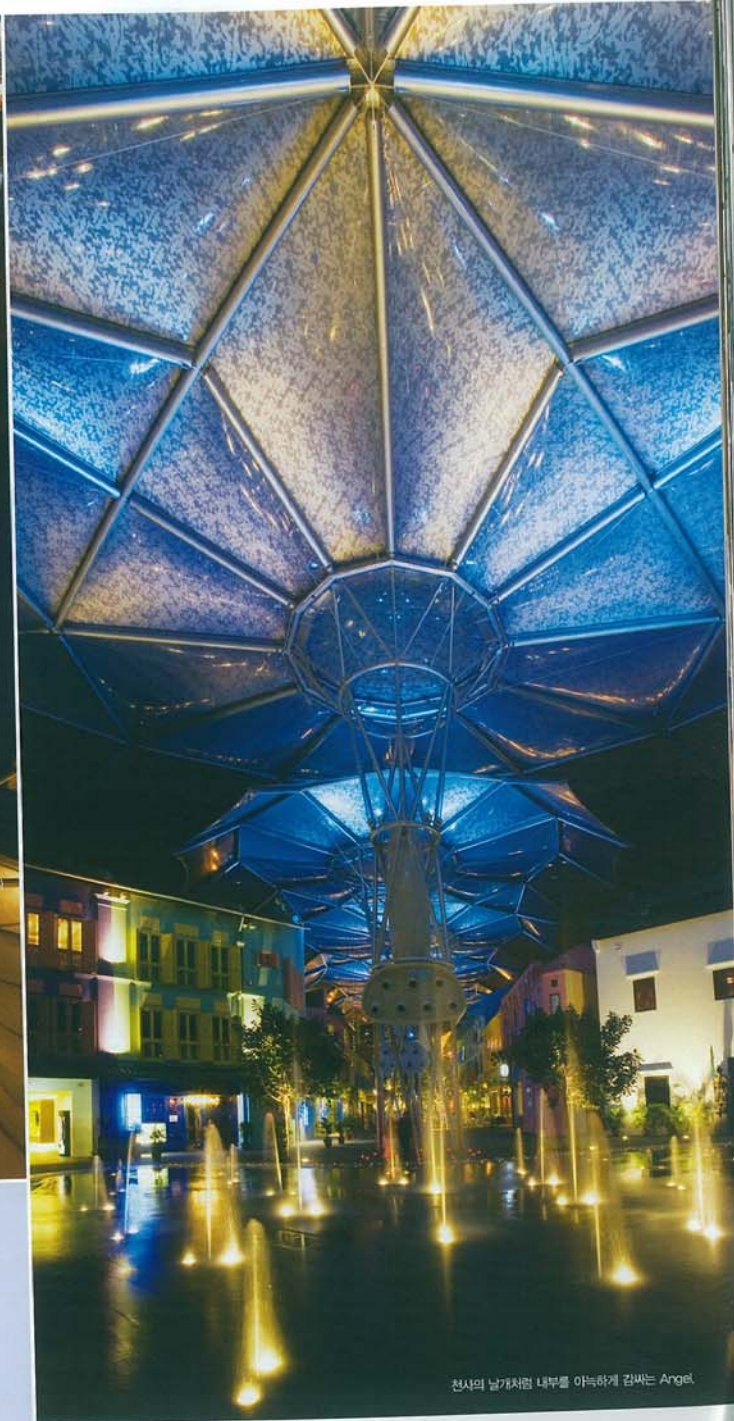


Architect / SMC Alsop - Will Alsop+44-20 7978 7878
Site / Clarke Quay, Singapore
Cooperation / Local Architect-RSP Architects
Engineer-Tensys
Concept Engineer-AtelierOne
Environmental Engineer-ARUP
Contractor-Kajima
Specialist Contractor-B+O Hightex
Client / Capitaland Commercial Ltd
Photography / Sizernstudio - Jeremy San

아름답고 화려한 클락키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Carried Away by the Singapore's Night View Clarke Quay Redevelopment

주제 / 이성진



천사의 날개처럼 내부를 아늑하게 감싸는 Angel.



곳곳에 사용된 조명은, 더욱 화려한 밤거리를 연출한다.



뜨거운 태양과 높은 습도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Angel은 쾌적한 쇼핑을 돕는다.

동서양의 연결부에 위치하여 이들의 문화를 고루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 중국어와 영어, 말레이어 등 여러 가지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곳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낙후성에 관한 선입견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선호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 가운데에서 과거 화려한 국제적 무역항으로 많은 이들이 찾았던 항구, Clarke Quay(클락키)가 얼마 전 새단장을 마치고 색다른 모습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싱가포르의 두 번째 총독인 Andrew Clarke의 이름을 본 딴 항구, 클락키는 상인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던 화려한 항만의 중심지였지만 1980년대에 있었던 재개발의 실패로 난잡한 상점들과 행상인들만이 찾던 낙후된 지역이 되었다. 이후, 퇴색해버린 이 지역을 Capitaland가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의뢰를 받은 런던의 건축가 Will Alsop은 클락키를 활기차고 밝은 관광의 명소로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디자이너는 먼저 주변의 자연환경은 만끽하면서도 낙후된 지역적 분위기를뿐만 아니라, 후덜덜하고 비가 끊이지 않는 열대성기후를 쾌적하게 바꾸어야 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던 에어컨처럼 획일화되지 않은, 색다른 구조체를 고안하여 강가의 풍경, 강바람과 함께 관광과 쇼핑, 식사를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지난 3월에 앞서 완공된 건축물들은 'the Riverfront'와 'the Streets', 'River Valley Roa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the Riverfront는 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에 상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곳이었는 데, 디자이너는 기존의 상점 배치를 그대로 활용, 위치상의 이점을 십분 살려 노천 카페를 연출하였다. 또한, 노출된 부분의 천장을 우산과 같은 형태의 천막으로 덮어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란한 컬러의 조명을 통해 이국적인 향취를 더하였다.

한편, 쇼핑몰이 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지만 고온다습한 날씨와 불비는 인파로 인해 짜증나기 심상이던 the Streets는 산뜻한 컬러의 벽체들과 상점의 유리에 적용된 다채로운 그래픽으로 독특하고 신선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곳에 디자이너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체와 얇은 ETFE(Ethyl Tetra Fluoro Ethylene)로 제작된 천장을 배치하여 뜨거운 태양광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천사의 날개를 닮아 'Angel'이라고 명명한 이들에 팬을 장착하여 실내에 선선한 바람을 제공함으로써 쾌적감을 높여주며, 내부에는 다수의 식물들을 통해 더욱 시원한 그늘을 제공함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부여하였다.

특출난 관광자원은 없지만, 리뉴얼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싱가포르의 클락키. 강가에 반사되는 불빛만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변화된 이곳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



강바람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the Riverfront의 노천 카페.



팬이 장착되어 내부에 선선한 바람을 제공하는 구조물.